

체험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소속감이 창출된 트라이브들이 모이면 팬덤fandom이 생긴단다. 자연스레 형성되든 인위적으로 구축하든, 팬덤은 컬트브랜드가 오래 지속되기 위한 필수요건이야.

팬덤을 구축하는 과정은 팬덤마케팅 전문가 박찬우 님이 쓴 《스노우볼 팬더밍》에 단계별로 잘 설명되어 있어. 간단히 보면, 자연스레 생긴 지지자들이 활동할 바탕을 만드는 저변 만들기(basing)를 시작으로,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발굴하기(digging), 발굴한 지지자들을 브랜드 및 다른 지지자와 연결하기(connecting), 연결된 지지세력을 팬으로 육성하기(nurturing),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등급으로 보상하는 승급(promoting)의 다섯 단계야.

팬덤 구축은 설명이 길어지니, 소개한 책을 보며 작은 그룹에서부터라도 시작해보렴. 팬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고 온라인 매체도 점점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저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